



1948년 7월 29일 영국 런던의 엠파이어스타디움(현 웹블리구장)에서 열린 올림픽 개막식. 이 사진은 당시 축구 대표로 출전한 고(故) 정남식 선수의 아들 정환중씨가 본지에 제공한 것이다. 당시 카메라는 파노라마 기능이 없어 세 장의 사진을 이어붙여 전경을 완성했다.

# 1948년 18일 걸려 간 런던서 동메달 2개 ... 이번엔 10-10 노린다

(금메달) (종합순위)

당시 국민이 모은 8만 달러로 67명 배·비행기 갈아타며 '장정' 올해는 350명 대규모 선수단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64년 전인 1948년 7월 29일, 그때도 런던에선 여름 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다.

뒷날 웹블리구장으로 이름이 바뀌는 엠파이어스타디움에서 태극기를 든 대한민국 선수단 기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야 했던 손기정(당시는 트레이너)이었다.

개막 D-100일이던 그해 4월 20일 신문 지상엔 '올림픽후원권 당첨번호'를 알리는 기사가 실렸다. 국민소득 350달러이던 빈국 국민은 한 장에 100원인 후원권을 사서 선수단 경비를 마련했다. 이렇게 모인 8만 달러로 임원 15명, 선수 52명의 선수단은 런던으로 떠날 수 있었다. 지금 가치로는 약 8억8000만원이다.

2012년 선수단 분진은 7월 20일 개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항편으로 런던으로 향한다. 비행 시간은 10~12시간 남짓. 48년엔 18일이 걸렸다. 6월 21일 서울역

을 출발해 부산역에 도착한 뒤 23일 일본 후쿠오카행 여객선을 탔다. 요코하마에서 다시 배편으로 상하이·홍콩으로 이동했고 홍콩에서 7개 도시를 경유해 7월 8일에야 런던에 도착했다. 선수단이 서울역에서 탑승한 객차는 일제가 1940년 도쿄 올림픽(중일전쟁으로 취소)을 위해 제작한 특별 차량이었다.

48년 올림픽의 별명은 '검약 올림픽'.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이 가시지 않아 영국도 배급제를 실시하던 때였다. 한국 선수단 숙소는 공군부대 막사와 한 초등학교 건물이었다. 식사는 현지에서 고용한 중국인 요리사 두 명에게 맡겼다. 2012년 한국 선수단은 침대 1만7320개 규모의 대형 선수촌에 입촌한다. 김영찬 대한체육회 국제경기팀 과장은 "입촌 전 런던 훈련캠프에는 영양사 10명을 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역대 미들급의 김성집과 복싱 플라이급의 한수안이 동메달 하나씩을 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기' 마라톤에서 홍종오가 25위, 서윤복이 27위, 최윤철이 기권해 그친 건 국민적인 충격이었다. 스웨덴과의 8강전에서 0-12로 참패한 축구 대표팀의 정남식(2005년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와 임원들이 런던의 숙소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아래 서명들은 축구대표팀 선수 전원이 친필 사인한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선수단이 서울을 출발해 런던에 도착하기까지 18일간의 여정이다. [사진 정환중씨]

작고)는 생전에 아들 정환중(61)씨에게 "우리 실력이 아시아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네 골을 내준 스웨덴의 군나르 노르달(이탈리아 세리에A 통산득점 2위)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회상했다고 한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350여 명

규모의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10개, 10위 내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림픽에서 한국 스포츠는 더 커지고 당당해졌다. 그 출발은 겨울 옷감으로 단복을 맞춰야 했던 48년의 런던 대회였다. 최민규 기자 didofido@joongang.co.kr

## 숫자로 본 런던올림픽



영국 런던 중심에서 동쪽으로 10km가량 떨어져 있는 스트래퍼드 지역. 16일 오전(현지시간) '올림픽 파크(올림픽 경기촌)' 건설 현장은 여전히 차단벽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두 달 전에 비해 들고나는 대형 트럭이 눈에 띄게 줄었다.

## 3 세 번째 개최 40억 세계 시청자

지게차를 운전하던 현장 근로자는 "라스트 터치(마무리 작업)를 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경기촌 내의 주 경기장을 포함한 9개의 경기장 공사는 모두 끝났다. 다음은 숫자로 보는 런던 올림픽 개요다.

#3=올해 여름올림픽은 1908년과 1948년에 이어 런던에서 열리는 세 번째 올림픽이다. 하지만 런던에는 올림픽 개최 흔적이 거의 없다. 1908년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두 해를 남겨놓고 이탈리

아 배수비오 화산이 폭발해 유지국이 갑자기 바뀌었다. 48년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다. 두 차례 다 올림픽이 간소하게 치러지며 이렇다 할 기념물이나 공간이 조성되지 못했다.

#20조=이런 연유로 2012 런던 올림픽 조직위는 국내용으로는 "영원히 간직될 유산을 만들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올림픽 준비 예산은 총 110억 파운드(약 20조원)다. 오래 기억될 기념물을 남기되 환경을 파괴하지 말자는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스트래퍼드의 올림픽 파크다. 경기장들이 들어선 곳은 문 닫은 공장과 산업폐기물로 뒤덮인 땅이었다. 부지 조성을 위해 파낸 오염된 흙과 철거된 건물에서 나온 자재들은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현장에서 사용됐다.

#40억=런던 올림픽 조직위는 7월 27일의 개막식을 지구촌에서 40억 명이 TV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 조직위에 공식 등록된 전 세계 취재진만 2만1000명이다. 예상 전 경기 총 관중 수는 880만 명이다. 올림픽 '특수'로 생기는 영국의 추가 관광수입은 20억 파운드(약 3조6000억원)로 예측되고 있다. 런던=이상원 특파원 joonny@joongang.co.kr

런던올림픽 특별섹션 >> C1-C8면

국민건강보험의 미래를 만들어 갈  
열정을 찾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입사원 채용

늘 국민곁에서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원서접수**  
2012.4.18~4.26 (9일간)

**모집분야**  
**요양직(171명)** ••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전산직(8명)** •• IT분야  
**기술직(5명)** •• 건축, 전기, 기계

**채용절차**  
 서류심사 → 필기시험 → 인성검사 → 면접심사 → 신체검사 → 임용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참조

평생건강 코리아!

**h·well 국민건강보험**